

요엘서와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제21편

Jeff Pippenger
2025-12-31

숫자 이십일

그리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제거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때부터는 천이백구십 일이 있으리라. 다니엘서 12:11.

1844년 10월 22일 이후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예언적 시간의 적용은 더 이상 올바른 예언의 적용이 아니다. 11절의 1290년 기간은 1844년 이후의 상징적 기간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1844년 이후의 적용, 곧 '시간'의 요소가 없는 기간에 대한 적용은 1844년 이전에 이해되었던 대로 진리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유지해야 한다. 1290은 먼저 30년, 그다음 1260년으로 이루어진 기간을 의미한다. 1844년 이전의 이해에 따르면, 508년부터 538년까지의 30년은 적그리스도가 538년부터 1798년까지 통치하기 시작하기 위한 준비 기간을 나타냈다.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바울이 다루는 주제는 30년간의 전환이다. 바울은 '시간'이라는 요소를 언급하지 않지만, 그 30년 동안 이교가 교황권에 자리를 내어 주는 예언적 특징들을 지적한다. 그 후 교황권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시간적 요소를 배제한 역사적 이해는 성경 예언의 넷째 왕국에서 다섯째 왕국으로의 전환을 지목하고, 이어 두 차례에 걸친 교황권의 피의 대학살 중 첫 번째가 뒤따랐음을 밝히며, 이로써 여섯째 왕국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삼중 연합으로 전환되는 것과 두 번째 교황권의 피의 대학살을 예표한다.

30년의 준비와 그 뒤를 잇는 예언적 기간이라는 구조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과의 언약을 나타내는 주요 상징이다. 30년에 걸친 두 권세의 전환과 그 뒤를 잇는 1260년의 박해는 그리스도의 30년 준비와 그 뒤를 잇는 1260일의 구원과 상응한다. 적그리스도의 30년 준비는 그리스도의 30년 준비를 모방한 것이다. 30년의 끝은 그리스도께서 세례 때 권능을 받으신 때 또는 538년에 적그리스도가 권능을 받은 때를 가리킨다. 적그리스도가 받은 권능은 이전 왕국에서 온 경제적 및 군사적 지원에서 비롯되었고, 그리스도께 부여 주어진 권능은 그분이 30년 전에 떠나신 이전의 왕국에서 온 것이었다.

두 시기의 전환점은 권능의 부여로 표시되며, 아브람과 바울이 제시한 두 시기의 구분은 단순한 비교로도 알아볼 수 있다. 아브람과 바울의 30년 구분에서 준비기는 언약의 과정을 나타내는 첫 30년이었고, 이는 아브람의 후손들에게 애굽에서의 종살이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도록 권능을 부여했다. 또한 430년에는 추가적인 상징적 구분이 있는데, 올바르게 적용하면 첫 215년은 하나님의 대표자와 바로로 나타난다. 요셉과 첫 215년에는 선한 바로였고, 모세와 둘째 215년에는 악한 바로였다.

그 구분은 네 세대의 두 시기를 가리킨다. 첫 번째 네 세대는 두 번째 네 세대와 줄 맞추어 겹쳐 놓을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예언적 알파와 오메가인 요셉과 모세가 알파에 해당하는 선한 바로와 오메가에 해당하는 악한 바로와 각각 상호작용한다. 이러한 평행적 고찰에서

큰 빛을 얻을 수 있지만, 내가 여기서 단지 지적하려는 것은 아브람의 네 번째 세대에 대한 예언이 430년 동안의 네 세대에 대한 두 증인을 지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네 세대의 이중적 표상은 창세기 4장과 5장의 족보에서 발견된다. 혈통 목록의 시작을 가인과 셋으로 간주할 때, 셋에서 노아까지 여덟 세대가 있으며, 그것을 중간에서 나누면 네 세대씩 두 시기의 표상이 된다. 이는 셋과 가인 모두의 여덟 세대 계보에서 확인된다.

4장과 5장의 족보는 그 계보의 끝, 곧 노아로 제시되어 있다. 노아는 무지개로 나타난 인류와의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한다. 아브람은 할레로 나타난 선택된 백성과의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한다. 이 두 언약은 언제나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노아의 홍수 바로 다음에 바벨탑이 나오는 창세기 11장은 아브람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제시된 곳이다. 그 본문에서는 여덟 대가 아니라 열 대이다. 아브람으로 이어지는 본문과 노아로 이어지는 본문에는 각각 아브라함 언약과 노아 언약이 나타난다.

선민을 다루는 제11장의 구절에서 우리는 그 세대들 가운데 두 세대가 큰 빛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된다.

에벨은 삼십사 세에 벨렉을 낳았다. 에벨은 벨렉을 낳은 후에 사백삼십 년을 더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벨렉은 삼십 세에 르우를 낳았다. 창세기 11:16-19.

에베에 대한 언급은 결국 '히브리'라고 불리게 되는 히브리어 단어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다. 선민의 족보에서 열 명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히브리'인데, 이것이 바로 선민이 알려지게 될 이름이다. 세 구절에서 에베와 펠렉은 선택된 히브리 민족을 구별하는 표시로 사용된다. 에베는 '건너감' 또는 '건너가는 자'를 뜻하며 '히브리'라는 단어의 뿌리이다. 아브람은 바빌론에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이들을 상징한다. '펠렉'은 '분열' 또는 '분할'을 뜻하며, 창세기 10장 25절에는 펠렉의 시대에 '땅이 나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에벨과 벨렉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예언적 구분을 나타낸다. 노아의 계보는 여덟씩 두 계통을 이루었는데, 이는 이집트에서의 430년이 그러하듯 네 세대의 두 묶음을 나타낸다. 창세기 11장의 계보는 선택된 백성의 계보이므로 여덟이 아니라 열로 표현된다. 그 선택된 백성은 다섯씩 두 무리로 나뉘며, 이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비유인 열 처녀의 비유와 부합한다.

그 선민의 족보에서 벨렉이라는 이름과 그의 역사적 성취는, 바벨탑 사건으로 땅이 나뉘었던 성경 역사 바로 그 시점에,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 두 부류의 분리를 나타낸다. 열 명으로 이루어진 목록에서 벨렉은 다섯째인데, 그것이 열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인 에벨은 아브람에 의해 예표되며, 밤중의 외침으로 두 부류가 갈라질 때 건너가 미련한 처녀에서 슬기로운 처녀로 되는 자를 대표한다. 이름으로는 최초의 히브리인인 에벨은 언약으로는 최초의 히브리인인 아브람을 대표한다. 주께서 아브람을 바빌론에서 나오게 부르신 일은 밤중 소리의 기별을 예표했는데, 그 밤중 소리는 바빌론에서 나오라고 부르는 둘째 천사의 기별이 권능을 받는 것이다.

열 처녀의 비유는, 벨렉의 경계선이 유예의 문을 닫기 직전에 나오라는 부르심을 대표하는 에벨과 벨렉으로 제시된다. 예언적 관계에서 에벨은 벨렉 이후 430년을 살았고, 벨렉은 그 후 30년을 살았다. 아브람의 삼중 언약의 첫 단계는 에벨과 벨렉으로

대표되었다. 아브람은 에벨로, 벨렉은 두 부류를 가르는 경계선으로. 바울이 아브람의 예언에 덧붙인 것은 벨렉이 에벨의 예언에 덧붙인 것과 같다. 에벨은 400년을 선포했지만, 벨렉은 430년을 밝혔다. 그러므로 벨렉은 바울을 대표했고, 바울이 400년에 30년을 더한 것도 대표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은 성경 예언의 '벨렉'을 지목하는 것이었다. 바울이 지목한 성경 예언의 '벨렉'은 민족을 문자적에서 영적으로 나누는 분리를 대표했다.

셈부터 펠렉까지는 다섯 대이며, 루부터 아브람까지도 다섯 대다.

그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은 자기들의 것이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며, 그들은 네 자손을 사백 년 동안 괴롭히리라. 창세기 15:13.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하신 것이다. 그는 여럿을 가리키듯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을, 그 뒤 사백삼십 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여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다. 만일 율법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더 이상 약속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갈라디아서 3:16-18.

서른 살

예수님은 서른 살에 사역을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친히 나이가 서른 살쯤 되셨으니,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었다. 누가복음 3:23.

요셉은 삼십 세에 이집트에서 바로를 섬기기 시작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나이는 서른 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나와 애굽 온 땅을 두루 다녔다. 창세기 41:46.

선지자 에스겔은 서른 살에 사역을 시작했고, 그의 사역은 22년간 지속되었다.

삼십 년째 되는 해 넷째 달 그 달 다섯째 날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나는 하나님의 환상들을 보았다. 에스겔 1:1.

에스겔의 기록에는 다른 어떤 예언자의 기록보다 더 많은 역사적 언급이 있다. 에스겔서에는 확인 가능한 연대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열세 차례 나오며, 성서학자들과 역사가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사역이 22년에 걸쳤음을 확인하지만, 22가 144,000의 상징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

다윗 왕은 삼십 세에 왕이 되었고 사십 년 동안 다스렸다.

다윗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 헤브론에서 그는 유다를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33년 동안 다스렸다. 사무엘하 5:4, 5.

다윗의 40년 통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며, 40이라는 기간은 아브람과 바울의 430년과 유사하다. 이는 그 40년이 두 부분(7년 반과 33년)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다윗의 40년 통치의 두 기간에는 예언적 수수께끼가 하나 더 있는데, 또 다른 성경의 증언은 그 두 기간을 7년과 33년으로 기록한다. 사무엘하의 그 추가된 6개월은 무엇을 의미하며, 7년 반과 33년이 어떻게 40년이 되는가? 예언적 진리를 나타내야 하는 6개월의 겹침이 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사십 년이었다. 그는 헤브론에서 칠 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삼십삼 년을 다스렸다. 열왕기상 2:11.

22는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상징하는 숫자이며, 에스겔의 사역은 22년 동안 지속되었다. 요셉의 14년은 7년씩 두 기간으로 나뉘고, 그리스도의 언약의 한 주간은 각각 1260일인 두 기간으로 나뉘며, 다윗의 40년 통치는 두 기간으로 나뉘는데, 그 두 기간을 연결하는 추가적인 상징이 있다.

예수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며 왕이시다. 후일에 그분은 승리한 교회를 기치로 높이 드실 것이며, 그 교회는 자신의 신성을 에스겔 선지자, 제사장 요셉, 왕 다윗으로 대표되는 사람들과 결합하신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그리스도로 대표된다. 네 가지 상징은 보통보다 일곱 배나 더 가열된 풀무불 속의 세 의인을 가리키며, 그때 넷째가 나타났고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았다. 느부갓네살의 금 신상 봉헌식에는 온 세계가 대표되어 있었고, 그들은 모두 인간 선지자, 인간 제사장, 인간 왕으로 이루어진 승리한 교회가 네 번째 신적 존재에 의해 지탱되고 있음을 보았다.

“사탄은 세상을 사로잡았다. 그는 우상적 안식일을 도입하여, 겉으로는 그것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는 듯 보이게 했다. 그는 이 우상적 안식일을 위해 기독교 세계가 주님의 안식일에 바쳐야 할 경배를 빼앗아 갔다. 세상은 전통, 곧 사람이 만든 계명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금 신상을 세워 그리하여 스스로를 높였듯이, 사탄도 그가 하늘의 예복을 훔쳐 마련한 이 거짓 안식일에서 자신을 높이고 있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8년 3월 8일.

숫자 4

예언적 차원에서 40은 아브람의 400의 십분의 일이며, 4는 40의 십분의 일이다. 숫자 4에서 발견되는 모든 예언적 특성은 40의 상징성과 부합해야 하고, 40의 상징성은 다시 400의 상징성과 부합해야 한다. 문맥상 4는 흔히 '전 세계적'을 의미한다는 것은 익숙한 이해이지만, 또한 '진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문맥에서는 '점진적 파괴'를 의미하기도 한다.

일곱 나팔 중 처음 네 개는 서방 로마의 점진적 파괴를 나타낸다. 콘스탄티노플의 동로마는 오스만 제국의 네 명의 술탄에게 복속되면서 종말을 맞았다. 차례차례 동서 로마는 네 개의 나팔로 상징되는 네 시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해체되었고, 동시에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의 이슬람에 의해 무너져 내렸다. 이 두 가지 흐름은 함께 네 차례의 나팔에 걸친 로마의 몰락을 드러내며, 이슬람과의 격화되는 전쟁은 이슬람의 네 명의 술탄이 왕국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할 때 궁극적 파멸로 이어진다. 서방과 동방의 역사는 330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제국을 분할하면서 시작되었다.

서방 로마의 네 나팔은 330년에 시작되며,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은 동방 로마를 몰락시키는 세력을 나타내고, 동방 로마도 330년에 시작되었다. 서방과 동방 로마 모두가 538년에 교황권을 세상의 왕좌에 올려놓는 일에 기여했으므로, 서방과 동방의 두 계통은 미국의 두 뿌를 예표하며, 미국은 일요일 법령 때 교황권을 다시 그 왕좌에 올려놓는다. 예언의 맥락에서 서방 로마는 교권을, 동방 로마는 정권(세속 권력)을 상징한다.

서방과 동방 로마의 몰락 역사 속에서 교황 로마의 역사가 제시된다. 에베소로 대표되는 제자들의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처음 세 교회는 네 번째 교회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교황권이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교황권은 사십이 달 동안 통치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1798년의 치명적 상처는 일요일 법령에서 치유된다. 1844년 이후에는 "시간이 더 이상 없다" 하였으므로, 그 사십이 달은 일요일 법령으로부터 미가엘이 일어설 때까지의 박해 기간을 상징한다. 선구자들은 교회들, 인들, 나팔들이 서로 평행하게 진행되는 세 개의 역사적 선을 대표한다고 이해했다. 서방 로마의 예언적 증언을 동방 로마의 선과 교황 로마의 선 위에 겹쳐 놓는 것은 밀러주의자들이 사용했던 예언적 적용 방식은 아니었지만, 그 기법은 그들이 확립한 어떤 이해와도 모순되지 않는다.

줄 위에 줄로, 첫 네 나팔을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이 나타내는 역사 위에 포개고, 이어서 넷째 교회가 나타내는 교황권 박해의 시대로 이어지는 처음 세 교회의 선도 포개다. 첫째 줄에는 네 나팔, 둘째 줄에는 네 술탄, 셋째 줄에는 네 교회가 놓인다. 숫자 '넷'은 전 세계적임을 의미하지만, 세속 권력이나 종교 권력 가운데 어느 하나의 점진적 파괴를 의미하기도 한다.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문맥이 결정한다.

일요일법이 시행될 때 교황권이 회복된다. 교황권이 처음으로 권세를 부여받았을 때에는 30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 처음 네 교회 가운데 네 번째 교회는 교황권을 가리키며,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로 대표되는 제자들의 교회였다. 기독교 교회의 처음 세 세대는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이세벨로 대표된다. 두아디라에 이르면, 538년에 오를레앙 공의회에서 일요일법이 제정되었고, 이로써 1798년의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될 때 미국의 일요일법이 확인된다.

1798년부터 미국의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는 처음 네 교회로 대표된다.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는 일요일 법령과 그 뒤따르는 교황권의 박해를 가리킨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첫 번째 교회 에베소는 네 단계의 점진적 멸망의 종결점, 곧 두아디라의 일요일 법령에서 끝났다. 두아디라의 일요일 법령으로 이끄는 세대는 버가모의 제3세대이다. 두아디라는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의 일요일 법령을 나타내며, 버가모는 두아디라를 위한 길을 준비하는 제3세대의 타협을 나타낸다. 버가모의 제3세대와 그것이 상징하는 타협은 321년에 최초의 일요일 법령을 제정한 콘스탄틴 시대에 처음 성취되었다. 미국은 에베소의 어린양으로서 시작했지만, 두아디라를 다시 왕좌에 올려놓을 때 용처럼 말하게 된다.

미국의 점진적인 멸망은 요한계시록의 처음 네 교회로 대표된다.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의 점진적인 멸망은 일요일 법령으로 이어지는 네 세대에 걸쳐 일어나며, 그곳에서 땅의 짐승이 용처럼 말한다. 마지막 세대는 에덴동산에서처럼 파충류인 용으로 대표되며, 그래서 세레 요한과 예수께서도 고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세대를 "독사의 세대"라고

불렸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세대는 십사만 사천을 대표하는 '택하신 족속'이거나, 그에 대응하는 '독사의 세대'이다. 한 부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고, 다른 부류는 짐승, 곧 뱀의 형상을 이루었다. '독사의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네 번 직접 제시되어 있다. 각 언급의 문맥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그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의 침례로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하였느냐? 마태복음 3:7.

만약 "독사의 자식들"이 단지 요한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두 종파 사람들에 대한 몇 마디 비하 발언에 불과했다면, 그 표현에 대해 따로 말할 것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단어는 거룩하므로, 요한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특정한 명칭을 부여한 것이다. 그 명칭은 그 표현이 나타나는 본문의 문맥에 의해 예언적으로 규정된다. 그 본문에서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수행하는 인물로 제시되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 속에 등장한다. 서두의 구절들에서 요한은 이사야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소개된다.

그때 세례 요한이 유대의 광야에서 나타나 전파하며 말하였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라, 이르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

그리고 그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었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주변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와, 자기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의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임할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주었느냐?" 마태복음 3:2-7.

고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세대는 광야에서 나온 한 예언자에 의해 '독사의 자식들'로 불렸다. 요한은 언약의 사자의 길을 준비하는 말라기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성취했으며, 또한 이사야가 지칭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기도 했다.

우리가 "앞사귀"를 하나의 상징으로 본다면, 그것은 "신앙 고백"을 나타낸다. 가장 처음의 언급은 아담과 하와에 관한 것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불의를 무화과 앞사귀로 가렸다. 그들은 이전에는 빛의 옷, 곧 의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것이 사라지자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달았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신앙 고백의 앞사귀" 뒤에 숨기만 하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요한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 신뢰하는 라오디게아의 유대인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데, 그들의 주제넘은 확신은 단지 공허한 신앙 고백의 앞사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옷은 그가 누구인지를 나타낸다.

나무는 사람과 왕국을 상징하며, 열매, 가지, 씨앗, 토양, 물, 뿌리,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잎사귀까지도 각자 고유한 예언적 상징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 각각의 진리는 '나무'를 이루는 예언적 상징들을 사용하는 다양한 예언의 흐름 속에 제시된 다른 상징들과 연결되어 있다. 물론, 나무의 첫 번째 예언적 상징은 그것이 생사를 가르치는 시험을 의미한다.

요한의 메시지는 그가 입었던 옷과 그가 먹었던 음식으로 나타난다. 고대 이스라엘 초기에 주어진 만나나 마지막 때의 하늘의 떡과 같은 예언적 음식은 반드시 먹어야 한다. 그 음식은 반드시 먹어야 하는 예언적 시험의 메시지를 상징하는데, 이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이기 때문이다. 요한이 입은 옷과 그가 먹은 음식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메시지와 그 사자를 드러낸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사자의 표상이다. 그리스도는 언약의 사자이시며, 일요일 법령 때 자기 성전에 갑자기 임하신다. 그 일이 일어날 때, 미련한 처녀들(그들은 라오디게아인이자 가라지이기도 하다)은 아브라함의 정당한 언약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의 마지막 네 번째 세대를 대표한다. 이는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났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랬던 것과 같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멩에를 매는 가죽들이 쓰는 것과 같은 마구 부속 장치가 달린 가죽 허리띠를 둘렀다. 그는 먹었고, 따라서 그의 메시지는 성경에서 이슬람의 대표적 상징인 메뚜기에 관한 것이었으며, 그는 그 이슬람의 메시지를 꿀과 섞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은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고 불렀다. 그것은 고수 씨 같고 희었으며, 그 맛은 꿀로 만든 과자 같았다. 출애굽기 16:31.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며, 그 맛은 꿀 같았는데,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먹는 것으로 묘사되는 메시지의 맛을 바로 그 꿀맛으로 규정한다. 요한은 메뚜기와 낙타 가죽 허리띠와 낙타 털로 상징되는 이슬람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메뚜기와 낙타는 모두 이슬람의 상징이다. 그 이슬람의 메시지는 '꿀'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뒤섞여 있었다.

그때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괴롭게 하셨도다. 청컨대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았으므로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느니라. 사무엘상 14:29.

요한은 단지 이슬람의 메시지를 대변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광야에서 나왔다. 그리고 요한은 그냥 꿀이 아니라 들꿀을 먹었다. 이는 그가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으로 상징되는, 자기들만의 꿀 같은 메시지를 지닌 당대의 제도들에서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한은 광야의 꿀을 먹었으니, 그는 자신의 시대의 종교 제도 바깥에서 성령께 훈련받았다. 그 시대의 일반적인 허리띠에는 사람이 낙타털 옷을 그에 매달 수 있는 경첩식 장치가 있었다. 그 경첩은 요한을 상징하는데, 그는 지상의 성소에서 하늘의 성소로 향하는 전환점이었다.

“선지자 요한은 두 시대 사이를 잇는 연결 고리였다. 하나님의 대표로서 그는 율법과 선지자가 기독교 시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 주기 위해 나섰다. 그는 작은 빛이었고, 그 뒤에는 더 큰 빛이 뒤따를 것이었다. 요한의 마음은 성령으로 밝힘을 받아 그의 백성에게 빛을 비추게 되었으나, 예수의 가르침과 모범에서 흘러나온 그 빛만큼 타락한 인류 위에 지금까지 그렇게 분명히 비추었거나 앞으로도 비추게 될

다른 빛은 결코 없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명은 그늘진 제사들 속에 예표되어 왔으나 겨우 어렴풋이 이해되었을 뿐이었다. 요한조차도 구주를 통해 주어질 장차의 불멸의 생명을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다.” 시대의 소망, 220.

요한의 경첩 같은 옷은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바로 그 시점에서 등장하는데, 그것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장소로 상징되는 전환점이었다. 그곳의 이름은 '나루터'를 뜻하는 벳아바라였으며, 그곳은 또한 옛 이스라엘이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광야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바로 그 장소였다.

물론 요한이 대표하는 것은 십사만 사천인의 운동이지만, 우리가 단지 지적하려는 바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분과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른 이들이 바로 그 세대였다는 점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크게 하시려고 오셨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영감으로 주신 분이시므로, 그분이 고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세대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실 때에는 둘째 계명이 셋째와 넷째 대에 이루어지는 심판을 지목하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셋째와 넷째 세대는 넷째 세대에서 끝나는 점진적인 심판을 나타내며, 그 넷째 세대는 '독사의 자식들'의 세대이다. 그리스도의 침례는 9/11을 예표한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라오디게아적 세대는 그때부터 마지막 세대에 들어섰다.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전한 기별은 라오디게아 기별이었다.

그러나 그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가 베푸는 세례에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였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또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할 생각도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다.

이제 도끼가 이미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려고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크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 자격도 없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실 것이다. 그는 키를 손에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깨끗하게 하여 알곡은 곳간에 거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오셨다. 마태복음 3:7-13.

예수는 갈릴리에서 오셨는데, 이는 요한의 허리띠의 경첩과 벳아바라의 의미와 일치하는 전환점을 상징한다. 그때 길을 예비하는 요한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증하는 사역으로 바뀌었다. 삼십 년의 준비는 끝났고, 십자가를 전후한 삼 년 반이 시작되었다.

요한의 메시지는 예루살렘의 파괴 때 임할 다가오는 진노에 대한 경고였으며, 그 파괴는 또한 세상의 종말과 마지막 일곱 재앙을 상징했다. 그 경고의 메시지는 이슬람의 맥락에서 제시되었고, 그것은 말라기가 말한 길을 예비하는 사자와 이사야가 말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성취했을 뿐 아니라 엘리야의 메시지까지도 성취한 한 사람에

의해 전해졌다. 이는 요한의 복장이 엘리야의 것과 비슷했듯이 요한의 메시지도 엘리야의 메시지와 비슷했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를 맞으러 올라와 이 말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허리에 가죽 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열왕기하 1:7, 8.

그들이 엘리야가 아니라 요한에 관해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물었다면, 그들은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띤 사람"이라는 답을 들었을 것이다. 요한의 6개월 전 사역 전체가, 마지막 곧 네 번째 세대가 구체적으로 지목되고 규정되는 그 본문 속에 요약되어 있다. 그들에게 주어진 라오디게아의 기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공격하며, 도끼가 나무의 뿌리를 치는 비유로 다가올 진노를 경고한다. 그 기별에는 그리스도께서 요한으로 시작된 시험의 과정을 마무리하실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 부르시고, 나무를 찍어 내리는 요한의 주제를 이어받아 그 이유를 설명하신다.

나무를 좋게 하여 그 열매도 좋게 하든지, 아니면 나무를 나쁘게 하여 그 열매도 나쁘게 하라. 나무는 그 열매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면서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아 둔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아 둔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사람들이 하는 모든 헛된 말에 대하여 그들은 심판의 날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을 것이며, 네 말로 정죄를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12:33-37.

둘째 계명에 따르면 심판의 날은 네 번째 세대에 임한다. 그 심판은 우리가 말하는 메시지를 근거로 하며, 그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 우리가 말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베드로가 말한 '택하신 족속'인지, 아니면 '독사의 세대'인지 식별한다. 그리스도께서 먼지 술을 든 사람처럼 자기 마룻바닥을 청소하시는 그 시험 과정의 결말에서 두 부류가 드러난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의 기름과 마찬가지로, 그 메시지는 악한 마음이거나 선한 마음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언급은 또한, 네 번째이자 마지막 세대인 이 '독사의 세대'는 표적을 구하며, 그들에게 주어질 유일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라고 덧붙인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악하고 간음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한가운데에 있으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남방의 여왕이 심판 때에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이는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기 때문이다.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마태복음 12:38-42.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시고, 심판에 대한 예로 요나에 관한 메시지와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메시지를 사용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맥락과 두 증인을 통해 '독사의 자식들'로 불리는 세대가 네 번째 세대임을 밝히십니다. 이는 네 번째 세대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144,000은 하나님의 율법과 안식일이 그러하듯, 말세의 기(旗), 곧 표징이다. 요나의 표적은 부활의 표적이며, 그리스도의 시대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던 그분의 세례였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다. 요나, 요한계시록의 요한, 다니엘, 요셉, 나사로는 사흘 반 동안 거리에서 죽어 있다가 부활하는 144,000을 상징한다. 그때 그들은 라오디게아인에서 빌라델비아인으로 전환하게 되어, 이로써 일곱에 속한 여덟째가 된다. 요나는 물에 던져졌고 고래에게 삼켜져 상징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세례를 상징한다. 그 후 그는 부활했다. 끓는 기름에서 끌려 나왔던 요한처럼, 사자굴에서 나왔던 다니엘처럼, 구덩이에서 끌려 나왔던 요셉처럼, 그리고 그리스도 시대의 인침의 기적이었던 나사로처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타난 요나의 표적을, 재림주의가 요나의 표적인 9/11의 표징을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보지 못했다.

다음 글에서도 이 주제들을 계속 다루겠습니다.

이제 가까이 있는 자들과 멀리 있는 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해져야 할 경고의 중심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이 기별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을 오늘의 그 모습이 되게 한 믿음의 기초를 허물고 기둥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적용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예언의 흐름을 따라 전진해 오면서 차례대로 펼쳐져 온 진리들은 오늘날에도 진리, 곧 거룩하고 영원한 진리이다. 우리의 경험의 과거 역사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예언들 속에서 진리의 연쇄를 본 이들은 모든 빛의 한 줄기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기도하고 금식하며, 감추어진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찾고 파헤쳤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셨다. 겉으로는 진리와 비슷해 보이거나 성경을 오해하고 오용한 내용과 뒤섞여 위험한 오류로 이끄는 많은 이론들이 제시되었다. 각 진리의 요점이 어떻게 확립되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그 위에 인을 치셨는지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내내 '여기에 진리가 있다', '내가 진리를 가졌으니 나를 따르라'는 소리들이 들렸다. 그러나 경고가 임했다.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달려갔다.' (예레미야 23:21 참조)

주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했고,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한 그분의 계시는 실로 놀라웠다.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확증하셨다. 그때 진리였던 것은 오늘날도 진리이다. 그러나 이런 목소리들은 끊이지 않는다—"이것이 진리다. 나는 새 빛을 받았다." 그러나 예언의 분야에서 말하는 이 새 빛들은 말씀을 오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여 줄 닷 없이 표류하게 함으로써 드러난다. 만일 말씀의 연구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드러내 보이신 진리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자기 것으로 삼아 소화하고, 실제 삶에 적용한다면, 그들은 살아 있는 빛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새 이론을 연구하겠다고 스스로 나선 사람들은 진리와 오류가 뒤섞여 있고, 이런 것들을 두드러지게 하려 애쓴 끝에, 그들의 등불이 거룩한 제단의 불로 켜진 것이 아님을 스스로 드러냈으며, 마침내 그 등불은 어둠 속에서 꺼져 버렸다. 선택된 기별, 제2권, 103, 104.

